

#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강사 田春愛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朴性妍

Dept. of Consumer & Housing, Catholic Univ.

Lecturer: Jun, Chun Ae

Dept. of Consumer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Park, Seong Yeon

## 〈목 차〉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IV. 요약 및 논의

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 결과 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mother's self-differentiation, intimate relationship,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parenting stress. The subjects were 144 middle class mothers who have a first-born child aged from 6 to 36 months in Seoul. Data were gathered via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the mother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Mothers who achieved higher self-differentiation perceived lower parenting stress.

(2) Mothers who highly satisfied with both their husbands' support and marital relations perceived lower parenting stress.

(3)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was not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 이 연구는 1997년도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SRCD) Biennial Meeting in Washington, DC에서 발표된 포스터 보고서의 확장 연구임.

(4) The variables predicting parenting stress were mother's self-differentiation, mother's satisfaction with intimate relationship and husband's support. However, the predictive powers of these variabl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mother's employment status.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연관된 신체적 요구, 부부관계에서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적·재정적인 기회 비용과 제한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다. 즉 매우 의존적인 존재인 아기의 출생으로 인하여 부모들은 수면시간을 방해받게 되고,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많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피곤이 누적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고, 성적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나며, 자녀의 요구가 배우자의 것보다 우선시되는 신념을 지니게 되어, 부부간 불평의 근원이 된다. 또한 자녀양육과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감이 부가되며, 부모 스스로가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여 부모들은 정서적 긴장을 경험한다. 이밖에도 부모들은 사회적 생활을 제한 받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Belsky, Lerner, & Spanier, 1984). 이러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기로의 전환기에 거의 누구나 경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므로 다른 주요한 생활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스트레스이지만, 매일 반복하여 경험하고 누적되므로 부모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부모의 자녀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도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ritic과 Greenberg(1990)에 의하면,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지각은 어머니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심리적 복지감, 가족 기능,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모-자녀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가 보고한 주요한 생활 사건보다 매일 경험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더 강력한 예언 변인이 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이고 부당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박응임, 1995; Abidin, 1990).

결과적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은 물론 부모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가 됨으로서 겪게 되는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모든 부모가 일정한 양(量)만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사이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밝히는 연구는 부모역할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Abidin, 1990; Belsky, 1984)에 의하면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부모의 인성 요소와 자녀 특성 요소 및 여러 상황적 요인들에 의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이론(Lazarus & Folkman, 1984)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지각 정도는 개인의 성격이나 지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사건 자체나 자녀특성 외에도 부모 자신의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지각 정도에 부모 자신의 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인의 인성특성은 아동기 때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양육 경험과 부모의 부부관계에 대한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elsky & Vondra, 1993; Amato, 1991). 이러한 개념은 Bowen(1978)의 자아분화 개념과도 연관되는데, 자아분화는 단시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가족(family of origin)에서 가족 성원들간의 장기간 상호작용에 의

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자아분화란 가족내의 감정적 상호의존, 혹은 감정의 상호교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감정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가족체계내에 융합<sup>1)</sup> 정도가 높을 때, 가족내에 일어나는 일들이 감정체계에 의해 지배되는 반면 지적체계를 이용하는 능력은 감소된다. 반대로 가족성원들이 감정체계로부터 분화<sup>2)</sup>될수록 지적체계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최연실 외, 1995). 따라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지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가정은 자녀양육 차이가 대체로 부모의 심리적 성숙이나 분화와 관련되므로, 심리적인 성숙과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한 Belsky와 Vondra(1993)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편 Abidin(1990)의 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상대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나 배우자의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만족해할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어질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배우자와의 지지적 관계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다 잘 견뎌내게 하며(Belsky et al., 1984), 또한 부정적이거나 거부적, 또는 민감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이 세대간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Belsky, 1990) 한 연구 결과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모역할 전환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부모기로의 전환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라는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모됨과 연관된 기쁨과 보상의 긍정적 측면이 복합되는 경험이므로 이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Belsky, Rovine & Spanier, 1983). 이에 대해

Crinic과 Greenberg(1990)는 부모역할에 덜 만족해하는 부모는 일상적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만족도 역시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취업 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직장일, 가사 그리고 자녀양육의 삼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는 공식적 영유아기 탁아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양육 대안을 찾지 못해 심리적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취업모 자신의 전통적 자녀관 내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전반적으로 높다(백경임·강희경, 1995). 이는 취업모가 자녀양육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맞벌이 가족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취업모에게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전춘애·박성연, 1996; 정현숙, 1997)는 취업모가 자녀양육에 있어 비취업모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부모의 인성, 부부관계, 부모역할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인 기능 변인들이 부모역할에서의 개인적 차이에 영향을 미쳐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달리 지각할 수 있으며, 또한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라서도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변인들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의 책임이 더 큰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에 기여하는 변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 현장에서 특히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

1) 융합(fusion) : 가족구성원들간의 경계가 통합되거나 모호해지는 과정으로서, 융합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긴장과 불안에 대해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Klugman, 1985).

2) 분화(differentiation) : 융합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감정적 독립을 의미한다(최연실 외, 1995).

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1-1.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부인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이다.

1-2. 결혼관계와 남편의 지지에 만족해하는 부인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이다.

1-3.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해하는 부인은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상대적 영향력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첫 자녀의 연령이 만 6-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 130명이다.

자녀의 연령을 만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아기가 출생한 후 6개월이 되어야 어머니와의 애착이 형성되며,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 36개월로 제한한 이유는 자녀양육에서 어머니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보는 영·유아기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세 이었으며, 대상자 남편의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이들의 결혼지속년수는 평균 3.7년 이었으며, 자녀수는 1명이 82%, 2명이 18%였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부인 71.6%, 남편 86.9%이었다. 부인의 경우 전업 주부는 63.1%(82명)이였으며, 직업을 가진 부인은 36.9%(48명)이었다. 그 중 사무직/기술직에 77%가 분포되어

있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사무직에 6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직업에는 고른 분포(10% 미만)를 나타내었다. 이들 가정의 평균 수입은 241.21만원으로 1990년 교육별, 1993년 직업별 인구분포자료(통계청, 1994)에 근거하여 볼 때 본 연구 대상은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한 결과, 자녀수(비취업모: 1.23, 취업모: 1.08/ t값=2.4\*)와 가족 수입(비취업모: 208.47, 취업모: 294.77/ t값=-5.56\*\*\*)에서만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자녀수가 더 적었으며, 수입은 비취업모 가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부인의 인성,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 그리고 자녀양육 스트레스 척도이다.

특히 개인의 인성은 단기간내에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원가족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므로,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에 이르는 근원을 두고 있는 Bowen(1978)의 자아분화 수준으로 인성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여 부인의 인성 척도를 자아분화 척도로 구성하였다.

#### (1)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척도는 본래 유은희·전춘애(1995)의 자아분화 척도 중 지적·정서적 척도의 5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지적·정서적 척도만을 사용한 이유는 개인의 지적 체계가 감정적 체계에서 잘 분화되어 지적 체계의 기능을 다 할 때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지적·정서적 척도만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인성 중 정서성(emotionality)<sup>3)</sup>이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3) 정서성 :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말한다(한세영, 1996).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현진, 1997; 한세영, 1996; Belsky & Vondra, 199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적·정서적 척도의 문항들은 정서성 문항들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

자아분화 척도에서 부정적으로 제시된 문항은 점수의 측정에서 역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4$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 결혼만족도 척도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Roach, Frazier 와 Bowden(1981)이 만든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변안·수정한 전춘애(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춘애(1994)는 실시의 간편함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MSS에서 30개를 제외하고 총 18개 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결혼생활의 일정한 시점에서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선호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3)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척도는 부인이 남편의 도움을 입신기에 기대하였던 것과 현재를 비교하는 점수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이희정과 이숙현(1995)이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Collins, Lobel, Dunkel-Schetter 와 Scrimshaw(1993)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근거로 하여 물질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

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가사 영역과 자녀양육은 質적으로 다르다는 선행 연구(이미숙, 1995)에 근거하여 도구적 지지에서는 다시 자녀 돌보기와 가사노동으로 구분하여 총 5가지 영역의 지지가 최종적인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응답 범주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에서 '기대보다 아주 많이 도움을 준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지지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부인의 부모역할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은강·조복희(1994)의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 중 일반적 만족도 척도의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은 첫 아이를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의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6$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5) 자녀양육 스트레스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Abidin(1990)이 개발한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변안·수정한 박응임(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박응임은 총 4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예비조사 결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부적절한 문항 8개를 제거하고 본 연구에서는 총 40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여러 중요한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또는 자신이나 여러 가지 가족상황 변인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아동 영역과 부모 영역으로 구성되어

4) 물질적 지지 :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경우,

도구적 지지 : 가사일 및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 제공,

정보적 지지 : 자녀양육 및 가족생활에 유익한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 이해, 격려하며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경우.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83$ 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전업주부 4명, 취업주부 4명)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척도들의 내용이 수정·제거되었으며, 본 조사는 1996년 2월 22일 - 3월 15일에 실시하였으며, 의도적 표출 방법에 의해 연구대상자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첫 자녀의 개월수가 맞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130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검증 을 위해서는 t-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분석

### 1. 연구 변인(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검증

(연구문제 1)인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t-test를 실시하기 전에 각 연구 변인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연구 변인 각각의 상·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자아분화수준 평균 : 2.98, 결혼만족도 평균 : 3.84,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 : 2.85, 부모역할 만족도 평균 : 4.31).

〈표 1〉에 의하면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그리고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 1-2는 지지되었다.

〈표 1〉 연구 변인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 검증

독립변인	종속변인	자녀양육 스트레스 평균	자녀양육 스트레스 표준편차	t 값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N=58)		2.77	0.39	3.49***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집단(N=61)		2.55	0.30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N=52)		2.76	0.34	2.90**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N=68)		2.57	0.36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N=64)		2.78	0.36	4.35***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N=57)		2.51	0.31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은 집단(N=64)		2.66	0.39	0.26
부모역할 만족도가 높은 집단(N=56)		2.64	0.34	

\*\*p<.01 \*\*\*p<.001

반면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평균 : 2.66 / 2.64),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2.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연구문제 2)인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인의 취업유무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던 자녀수와 가족 수입 두 변인만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2단계에서는 부인의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부인의 취업유무별 연구변인의 상관관계표는 부록에 제시).

〈표 2〉에 의하면 취업모의 경우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포함된 1단계에서는 자녀수만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

〈표 2〉 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제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N=48)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자녀수	.63	.46**	.37	.28
가족수입	.00	.20	.00	.00
자아분화수준			-.13	-.22
결혼만족도			-.08	-.10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19	-.43*
부모역할만족도			-.02	-.02
절 편	1.71		3.57	
R <sup>2</sup>	.23		.47	

\*p<.05 \*\*p<.01

는 것을 알 수 있다(설명력: 23%).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량의 47%를 설명하였으며, 이들 변인 중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취업모의 경우에는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비취업모의 경우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포함된 1단계에서는 가족수입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어서, 가족수입이 적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14%). 회귀분석의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들이 자녀양육 스트레스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며, 이들 변인 중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되어진다.

〈표 3〉 비취업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제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N=82)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자녀수	.19	.22	.15	.18
가족수입	-.00	-.34**	-.00	-.23
자아분화수준			-.20	-.32*
결혼만족도			-.09	-.14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05	-.12
부모역할만족도			-.04	-.05
절 편	2.75		3.92	
R <sup>2</sup>	.14		.32	

\*p<.05 \*\*p<.01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36개월 이하의 첫 자녀가 있는 어머니 130명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수준, 결혼만족도,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고, 부인의 취업유

무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그리고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적인 성숙과 분화가 잘 이루어질수록 부모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한 Belsky와 Vondra(199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배우자와의 관계 즉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 Belsky(1984)의 양육행동 결정 요인에 관한 과정 모델과 Abidin(1990)의 부모 행동의 다요인적 결정모델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지지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보다 잘 견뎌내게 한다는 Belsky, Lerner, 그리고 Spanier(1984)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둘째, 부모역할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결혼 후 부모가 되는 것을 당연시여기고 있으며, 현대 산업사회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부모-자녀관계를 부부관계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이숙현, 1990) 자녀로 인한 부모역할 만족도의 높고 낮음은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 만족도가 일상적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Crinic과 Greenberg(1990)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로 인한 긴장감과 보상감은 긴장감이 높아지면 보상감이 낮아지는 관계라기 보다는 상호연관되어 있다고 한 한경혜·이정화(199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부모기로의 전환 시기에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만족도는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부모역할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역할 만족도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셋째, 취업모의 경우에는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취업모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변인보다 남편의 지지가 자녀양육, 가사, 직장 일 등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 취업모에게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는 많은 선행 연구(전춘애 외, 1996; 이희정 외, 1995; Belsky & Kelly, 1994)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부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춘애와 박성연(1996)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듯이 비취업모의 경우에는 남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녀양육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인 혼자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즉 대부분의 자녀양육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 때 부인 스스로가 감정체계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지적 체계를 얼마나 선택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부인의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 체계에 의해 생활하는데 비해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지적 체계에 근거하고 보다 신중히 생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Walsh(1982)의 결과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 역시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그들은 다양한 대처 기제를 사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기질 중 정서성(emotionality) 요인이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한세영(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 유무에 따라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시모나 친정모, 그리고 탁아원에 의해 자녀양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취업모(전춘애 외, 1996)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을 자녀와 함께 해야 하는 비취업모와는 자녀양육 스트레스의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취업모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많은 역할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과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지지가 취업모에게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 연구는 개인의 인성 특성이나 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족 환경 변인인 남편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 즉 아동의 특성이나 Bronfenbrenner(1979)가 제시한 가족 내·외의 환경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중·상류층으로 한정시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더 높은 자아분화수준과 지지적인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경우에는 자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자원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부모역할에 따른 많은 요구들이 스트레스로 덜 지각되며,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경임·강희경(1995). 3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 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유은희·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전현진(1997).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 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1-162.  
 최연실 외(역) (1995).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도서출판 하우.  
 한경혜·이정화(1995). 남성의 직업역할과 부모기 전이로 인한 긴장감/보상감. *가족학논집* 7, 155-183.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은강·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Abidin, P. R.(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298-301.  
 Amato, P. R.(1991). Psychological distress and the recall of childhood family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11-1019.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elsky, J.(1990). Parental and nonparental child car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 decade in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885-903.  
 Belsky, J., & Vondra, J.(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Lawrence

-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33.
- Belsky, J., & Kelly, J.(1994).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How a first child changes a marriage*. Delacorte Press.
- Belsky, J., Lerner, R. M., & Spanier, G. B.(1984). *The child in the family*. NY: Random House, 113-133.
- Belsky, J., Rovine, M., & Spanier, G. B.(1983).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67-577.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Y: Jason Aronson.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lins, N. L., Dunkel-Schetter. C., Lobel, M., & Scrimshaw, S. C.(1993). Social support in pregnancy: Psychosocial correlates of birth outcomes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243-1258.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Walsh, F.(1982). Conceptualizations of normal family functioning. In Walsh, F.(Eds.), *Normal family processes*, NY: The Guilford Press, 3-42.

〈부록 1〉 취업모의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표

		(N=48)						
		1	2	3	4	5	6	7
1. 자녀수		1.00						
2. 가족 수입		-.09	1.00					
3. 자아분화수준		-.38**	-.06	1.00				
4. 결혼만족도		-.00	-.12	.02	1.00			
5.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06	-.27	.01	.66***	1.00		
6. 부모역할만족도		.11	.15	-.02	.20	-.13	1.00	
7. 자녀양육 스트레스		.45**	.14	-.33*	-.36*	-.51***	.09	1.00
평    균		1.08	294.77	3.08	3.78	3.00	4.33	2.65
표준편차		0.28	86.35	0.67	0.50	0.81	0.40	0.36

\*p<.05 \*\*p<.01 \*\*\*p<.001

〈부록 2〉 비취업모의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관계표

		(N=82)						
		1	2	3	4	5	6	7
1. 자녀수		1.00						
2. 가족 수입		.15	1.00					
3. 자아분화수준		-.06	.10	1.00				
4. 결혼만족도		-.17	.18	.12	1.00			
5. 남편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		.02	.23	.12	.45***	1.00		
6. 부모역할만족도		-.19	.12	.28*	.24*	.23*	1.00	
7. 자녀양육 스트레스		.17	-.30*	-.39***	-.28*	-.26*	-.24*	1.00
평    균		1.23	208.47	2.92	3.87	2.76	4.30	2.66
표준편차		0.42	77.27	0.66	0.55	0.85	0.49	0.36

\*p<.05 \*\*\*p<.001